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17-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간의 공존 방안

2023. 02. 08.

담당자 박서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0962
e-mail | sy.park@hrc.co.kr

진현준 인턴연구원
e-mail | i2sdo21@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간 공존 방안

여론 속의 여輿론論

1 주요 결과

-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300만을 넘고,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문제 상황들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다. 본 조사 결과, 현재 키우지 않지만 여견이 된다면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는 응답자가 143명으로 반려견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2년 12월 9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반려견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려견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두 집단은 상대방의 행동 역시 문제 상황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과 위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안전 및 위생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과반 이상이 '배설물 수거 의무',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사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와 '입마개 착용 의무'의 적용 대상도 맹견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

- 반려견 관련 규제의 강화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90%)는 응답이 높고,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이 필요하다(88%)는 응답 역시 높아,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 반려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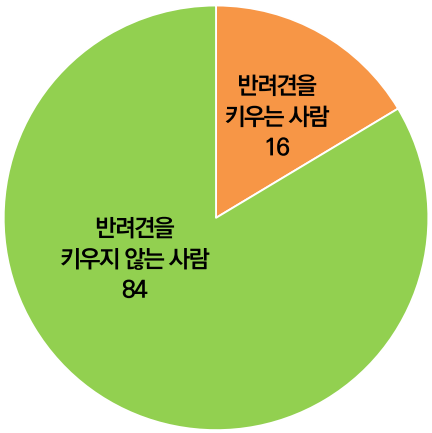
최근 6개월 이내 반려견 키우는 사람 16%, 키우지 않는 사람 84%
'향후 여건 되면 반려동물 기르고 싶다'는 응답자의 86%는 "개를 키우고 싶다"

본 조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란 최근 6개월 이내에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거나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를 키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조사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6개월 이내 반려견을 키운 적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6%, 키우지 않는 사람은 84%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키우고 싶다는 응답자 166명 중 86%인 143명이 개를 키우고 싶다고 답해 앞으로 반려동물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혹은 최근 6개월 사이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6%

(단위 : %)



질문: 귀댁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귀하께서는 과거 반려동물을 길렀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어떤 반려동물을 기르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은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 6개월 이내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

표본 수 : 1,000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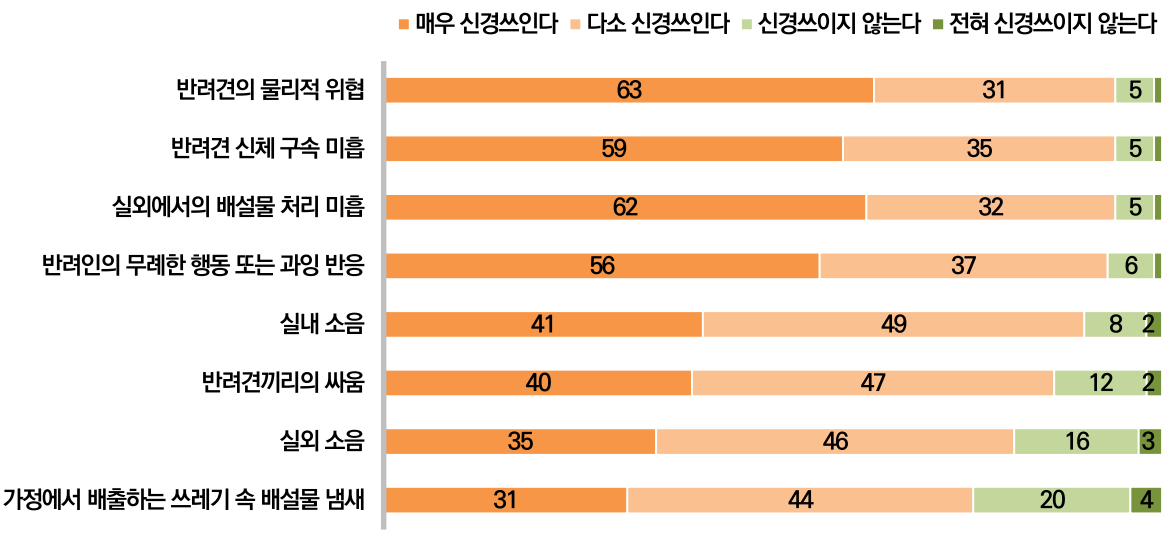
2 반려견 문제에 대한 인식

반려인과 비반려인, 강도 차이는 있지만 반려견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공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문제 상황들에 대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우려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우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836명 중 '신경이 (매우+대체로) 쓰인다'는 응답은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94%)', '실외에서의 배설물 처리 미흡(94%)', '목줄, 입마개 미착용, 이동장 미사용 등 반려인의 공공장소 에티켓 미준수(반려견 신체 구속 미흡)(94%)',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93%)', '실내 소음(90%)', '반려견끼리의 싸움(87%)', '실외 소음(81%)'.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75%)' 등 모든 항목에서 높았다. '매우 신경쓰인다'는 응답에 한정하여 보면,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63%)', '실외에서의 배설물 처리 미흡(62%)', '목줄, 입마개 미착용, 이동장 미사용 등 반려인의 공공장소 에티켓 미준수(반려견 신체 구속 미흡)(59%)',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56%)'에서 응답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다.

(단위 : %)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반려견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커



질문: 다음은 반려견과 관련해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상황이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

표본 수 :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836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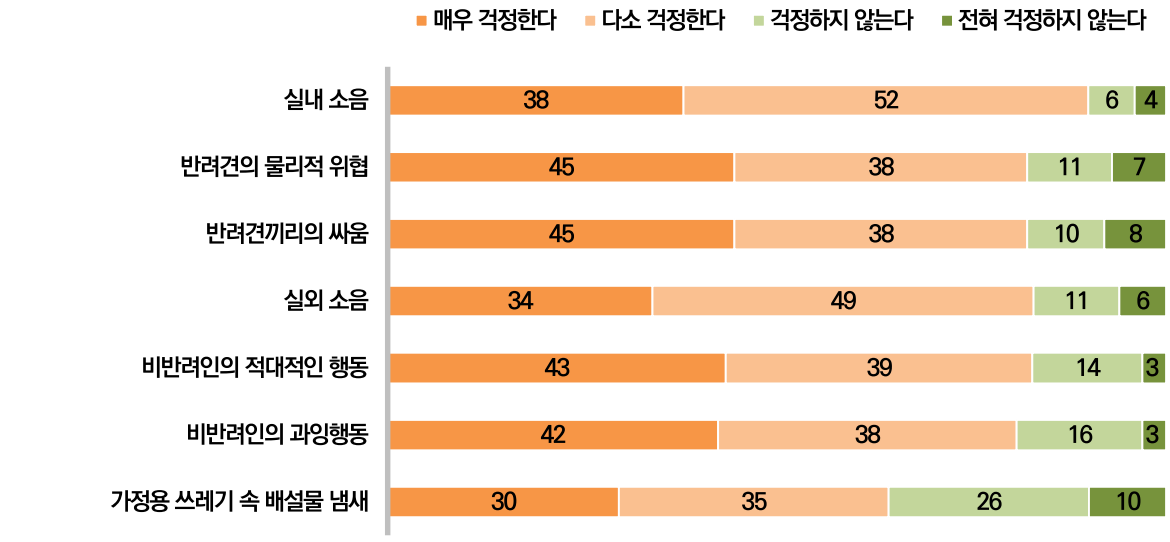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반려견을 키우는 164명 역시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매우+다소)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실내 소음(90%)',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83%)', '반려견끼리의 싸움(83%)', '실외 소음(83%)',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82%)', '반려인의 과잉행동(80%)',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65%)' 등 모두 높았다. '매우 걱정한다' 응답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45%)', '반려견끼리의 싸움(45%)',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43%)', '비반려인의 과잉행동(42%)', '실내 소음(38%)', '실외 소음(34%)', '가정용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반려인도 물리적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두 집단에서 상대의 태도를 주로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중 과반 이상이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56%)'에 대해 '매우 신경쓰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과 '비반려인의 과잉행동'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43%, 42%로 나타나, 상대의 행동 역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실내 소음과 함께 반려견의 안전 위협 문제 걱정하고 있어

(단위 : %)



질문: 다음은 반려견과 관련해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상황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표본 수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164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반려견 관련 법규 인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맹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인지도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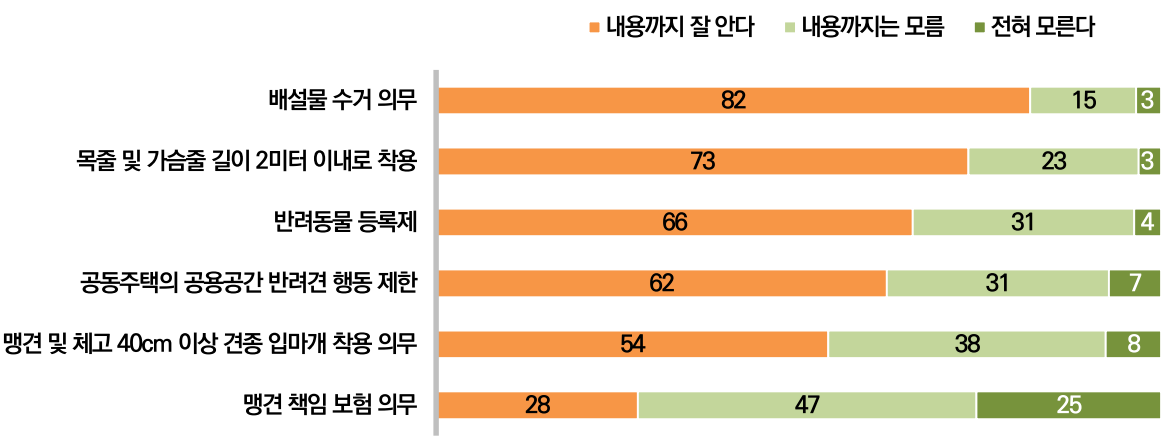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관련 법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맹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82%)', '목줄 및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73%)', '반려동물 등록제(66%)',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62%)'에 대해서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감소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를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에 그쳤다.

반려견 관련 주요 에티켓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하기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기
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하기	반려견을 만지기 전 반려인의 동의 구하기
외출 시 길이 2m 이내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하기	반려견에게 반려인의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공동주택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 가입하기	반려견에게 말을 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맹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인지도 떨어져

(단위 : %)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 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표본 수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164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반려견 관련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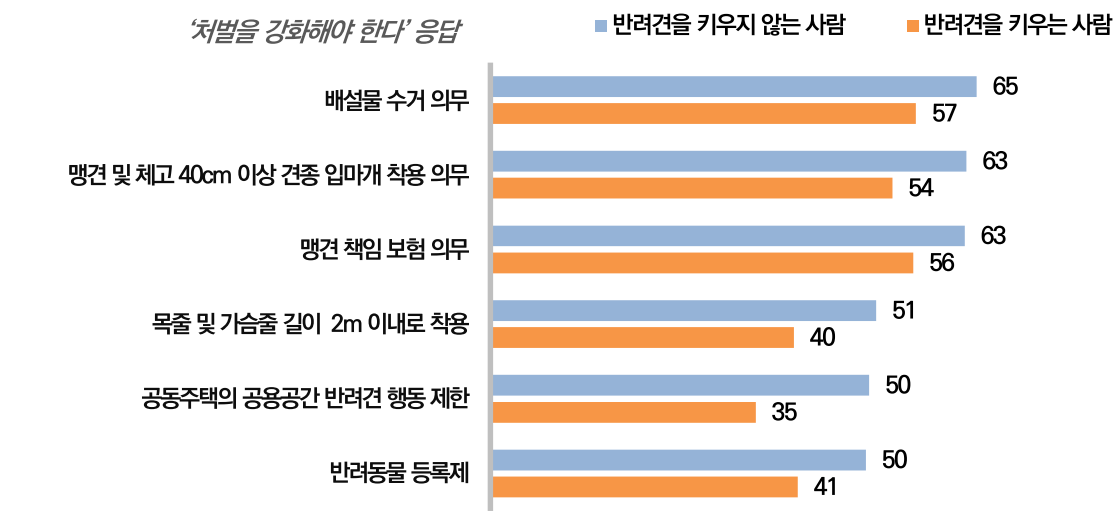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 및 위생 관련 처벌강화에는 한 목소리

시민들이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상황 중 특히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의 처벌 수준과 적용 대상이 적정한지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배설물 수거 의무',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와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65%)',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63%)', '맹견 책임 보험 의무(63%)', '목줄 및 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51%)',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50%)', '반려동물 등록제(50%)'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57%)', '맹견 책임 보험 의무(56%)',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54%)'에서는 처벌 강화에 동의한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41%)', '목줄 및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40%)',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35%)'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5~41% 수준에 그쳤다.

(단위 : %)

안전 및 위생 관련 처벌 강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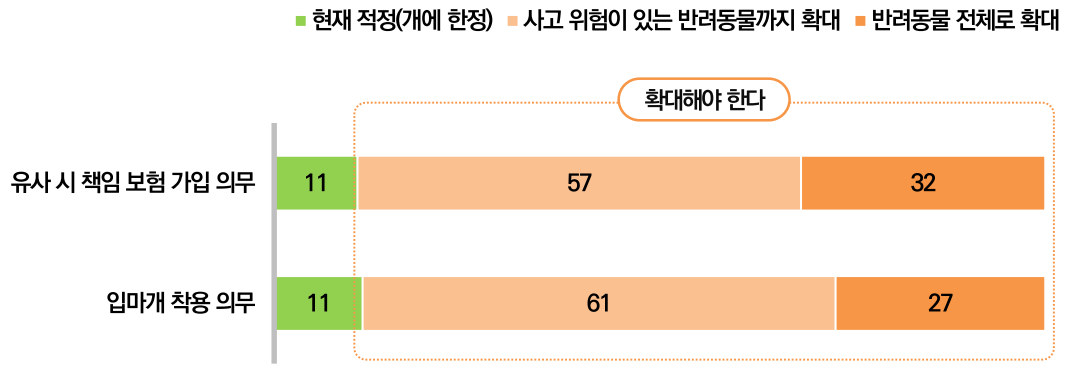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는 각 규제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836명,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164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규정과 입마개 착용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각각 991명, 992명) 중 89%, 88%가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규정 모두 사고 위험이 있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고,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와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확대에 10명 중 9명이 동의

(단위 : %)



질문: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마개 착용 의무) 입마개 착용 의무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의무 규정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991명, 입마개 착용 의무: 992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가/지자체의 규제 및 감독은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는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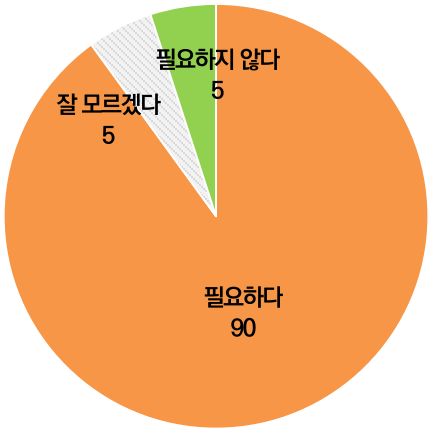
반려견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관리감독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반려견 관련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책임 의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규정의 점검 뿐만 아니라 홍보와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안전 사고 예방으로 직결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한 반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은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에 비해 아직 반려동물 관련 규제의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 상황의 예방과 해결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및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동의

(단위 : %)



질문: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반려동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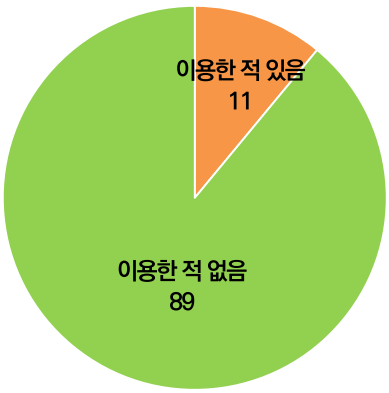
표본 수 : 1,000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반려동물 관련 시민교육 받은 경험 있는 사람은 11%에 불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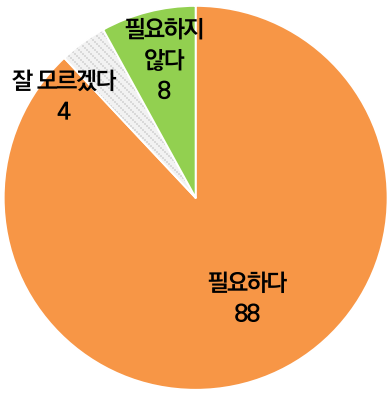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 아래 각 항목별로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펫티켓(펫–에티켓)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시민인식 교육

표본 수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164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 실시해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

(단위 : %)



질문: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펫티켓(펫–에티켓)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시민인식 교육

표본 수 : 1,000명

조사시기 : 2022. 12.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1월 기준 전국 8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127명, 조사참여 1,44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3%, 참여대비 69.4%)
조사일시	• 2022년 12월 9일 ~ 12월 1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